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4)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자료와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의 비교 -

필자는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자(字)]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기호 회장 관련 핵심 자료에는 회장의 자서전[『봉교자술(奉敎自述)』(1901)], 후손들의 가전 자료[『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김재환, 1979)], 족보 기록[『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 전10권 중 제4권(1980)] 등이 있습니다. 한편, 김형옥 회장에 관한 교회측 자료는 회장 자신의 시복재판 증언이 수록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김형옥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는 『병인지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김형옥 회장을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았던 블랑 주교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administ... les sacrements. Apres l'avoir questionne un peu sur l'etat des chretiens et la possibilite du voyage, je repondis que j'irais avec lui s'il venait me chercher vers le milieu de la 10^e lune. En attendant, j'ecrivais a Kim hyong-o-ki, ancien catechiste qui accompagnait jadis M^{gr} Bernier dans ses voyages en Hwang-an, que je le nommais de nouveau catechiste, et le priais de

chretien du Sud nomme a la majorite des chretiens de la vallee; a Yang yang, O Mathieu, ancien catechiste du Sud, desire par les chretiens; a Hwang-tyeou Kim Ogan, ancien catechiste de Tschyau-tyeou. Enfin, comme grand catechiste du Nord, Kim Hyong-o-ki, deja connu, habitant aujourd'hui le district de Sak-myong en Hwang-keui. Voilà donc les premiers du Nord a ma connaissance. L'aimable M^{gr} Bernier benit les premiers efforts faits pour procurer de plus

1876년 12월 31일 블랑 신부가 강원 이천 곰의골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 중 김형옥 회장 관련 내용 위(f.194) 베르뇌 주교의 평안도 순회 때 수행했던 김형옥 회장 / 아래(f.199) 블랑 신부가 김형옥을 조선 북부 총회장으로 임명

이번 호에서는 선교사제의 서한에 나오는 김형옥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봉교자술』에 기록된 김기호 회장의 교회 활동과 대조할 것입니다.

1860년대 베르뇌 주교를 수행했던 김형옥 회장 - 1876년 당시 경기도 삭령 거주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제들의 서한에서 처음 김(형옥) 요한 회장이 언급된 것은 칼레 신부의 「우세영 알렉시오의 순교 보고서」(A-MEP, Vol.579, ff.1226~1231)[1866년 3월 11일 작성입니다. 여기서 우세영이 18세 때 ‘회장 김 요한’(catéchiste Kim Jean)를 통해 입교했다고 나옵니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9권 1804~1805쪽) 증인 김형옥의 진술[127회차 1900.9.19]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1876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다시 조선에 입국하여 전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블랑 신부는 그해 연말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황해도 지역을 사목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블랑 신부는 편지를 보내 ‘삭령 지방에 살고 있으며 베르뇌 주교 재임 시기에 회장으로 있던 김형옥(Kim, hye* ok-i)을 다시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1876년 10월 10일 블랑 신부가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160]) 『봉교자술』(한글본 15뒤~16앞, 한문본 9뒤~10앞)에 나오는, 1876년 당시 김기호 회장이 수년간 ‘삭령 살꼬지’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동료 신자들의 방문을 받고 블랑 신부의 사목 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1876~77년 블랑 신부의 사목 순회에 수행한 김형옥 회장 - 조선 북부의 총회장이 되다

블랑 신부는 베르뇌 주교의 평안도 순회 때 수행했던 김형옥을 다시 회장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을 찾아 성사 예비를 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형옥은 블랑 신부가 보낸 임성실 베드로[김대건 신부 체포 당시 배주인]와 함께 주변 지역을 돌면서 신자들을 찾아내고 성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김형옥 일행은 양력 12월 1일 서울로 올라와 블랑 신부에게 준비가 마쳤음을 보고했고, 12월 4일 블랑 신부가 임성실, 김형옥 일행과 함께 수개월에 걸친 사목 순회를 떠났습니다.(1876년 12월 31일 블랑 신부가 강원도 이천군 곰의골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194]) 이 내용은 『봉교자술』(한글본 16앞~16뒤, 한문본 10앞)에서도 나오는데 다만 출발일이 12월 6일(음력 10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랑 신부는 방문한 곳마다 공소를 설립하고 회장을 임명했는데, 위의 서한이 작성되는 시점에 김형옥(Kim Hyeng-ok-i)을 ‘조선 북부의 총회장’(grand catéchiste du Nord)으로 임명했습니다.(위의 12월 31일 서한[f.199]) 이 내용은 『봉교자술』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 김형옥은 블랑 신부의 지시에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파견되어 선교사제들을 보좌하면서 전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77년 황해도 배천 신임 선교사제의 집주인이자 복사 - 조선말 선생 및 사목활동 보좌

『봉교자술』(한글본 16뒤~17뒤, 한문본 10앞~10뒤)에 의하면, 블랑 신부의 지시로 1877년 3월 이후 가족들과 함께 삭령을 떠나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사했는데 새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선교사제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정확히는 양력 9월 23일] 리델 주교와 두세 신부, 로베르 신부가 조선에 입국했고, 서울로 올라간 리델 주교를 제외한 두세·로베르 신부는 배천 김기호 회장 집에 거처하면서 조선말과 풍습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해 말 로베르 신부는 강원도 이천으로 옮겨가고, 김기호 회장은 두세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로서 사목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에서는 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블랑 신부의 서한에서 나오는 ‘배천에

사는 유식자[선배 김 요한(Kim Jean le lettré de Paik Tchyen)](1879년 5월 1일 전라도 용담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579)),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 나오는 ‘배천 옛 사제관의 집주인 김 요한 회장 (le catéchiste Kim Jean, notre ancien Maître de maison à Paicktchien)’(1879년 5월 27일 강원도 양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606)), ‘두세 신부의 옛 복사 김 요한 회장(catéchiste Kim Jean, ancien servant de Mr. Doucet)’(1879년 9월 25일 양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661))이 김형옥 =김기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878~1882년 로베르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 - 예비신학교 운영과 교리서 『구령요의』 저술

『봉교자술』(한글본 17뒤~18앞, 한문본 10뒤~11앞)에 의하면, 1878년 음력 6월 이후 두세 신부는 경상 도로 전임되고, 김기호 회장은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삭녕 지역에 집을 구해 예비신학교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사목 순회에 수행하면서 충청도, 강원 일대에서 전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 소식이 들리자 로베르 신부와 함께 강원 양구 궁골 공소에 피신했습니다. 피신했던 여름 동안 신부의 지시로 교리서인 『구령요의(救靈要義)』를 저술했습니다.

블랑 신부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도 김형옥 회장이 로베르 신부의 복사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로베르 신부의 1879년 9월 25일 서한(위의 서한[f.661])에서는, 양구 산속에 피신했 때 신부가 김 요한 회장에게 한문을 배웠고, 김 요한과 함께 신자 교육용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소책자가 『구령요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부의 지시로 1882년까지 수차례 평안도 지역 방문 - 평안도 신앙공동체 재건의 공로자

『봉교자술』(한글본 18앞~21뒤, 한문본 11앞~13앞)에 의하면, 당시 대목구장 직무대행인 블랑 신부의 지시로 김기호 회장이 평안도 지역을 방문하여 예전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성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음력 10월부터 다음해 음력 2월까지 진행된 김기호 회장의 평안도 방문은 3차례(1879~1880년, 1880~1881년, 1881~1882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사 예비된 신자가 6~7명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두 번째는 40~50명, 세 번째는 추가로 3~40명의 신자를 대상으로 성사 준비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지역(평양)에 와서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에도 김형옥 회장의 평안도 전교 활동이 나오지만, 『봉교자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자신의 복사 김[형옥] 요한 회장을 처음 평안도 지역으로 파견한 것은 ‘1878년 12월 초’로, 『봉교자술』에서 언급된 첫 번째 방문보다 1년 정도 빠르며, 드게트 신부 체포 이전입니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블랑 신부의 지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78년 방문에서 김[형옥] 회장은 기대 밖의 성공을 거둬 70명의 신자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879년 가을에 다시 [김형옥] 회장을 보내고 겨울에 로베르 신부가 직접 가서 성사를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위의 1879년 5월 27일 로베르 신부의 서한(ff.606~607)] 하지만 드게트 신부가 체포되는 바람에 로베르 신부와 김형옥 회장이 피신을 떠났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대신 블랑 신부의 서한을 통해 김형옥 회장이 다시 평안도 지역을 방문했고,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신자에게 성사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2년 2월 블랑 신부는 자신이 예전에 김형옥 요한(Kim Jean dit Hyeng-oki)을 평안도로 보냈는

데,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1882년 2월 22일 전주 배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982)] 확실한 결과는 그해 5월 24일 서한[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f.998-999)]에서 확인되는데, 블랑 신부는 ‘유명무실했던 평안도 교회가 되살아났고, 로베르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오랜만에 약 60명의 신자에게 성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이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교자술』(한글본 19앞, 한문본 11뒤)에서 김기호 회장은 ‘3년 동안에 성사 받게 한 수가 불과 80여 인뿐이라. 어찌 부끄럽지 아니 하리오’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표현했지만, 블랑 신부는 ‘빈사 상태에 빠졌던 평양[평안도] 교회를 재생시켜준 사람은 두 번이나 그곳으로 갔던 김형옥 회장(catéchiste Kin[Kim]-yen Hyeng-ok-i)’[위서한(f.999)]이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평안도 지역의 전교활동에 대해서는 『봉교자술』과 선교사제의 서한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형옥=김기호 회장이 평안도 교회를 재건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서한(A-MEP, Vol.580, Vol.581)[1900년까지 서한 모음]에서는 김형옥 요한 회장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제들의 서한을 통해, 김형옥=김기호 회장이 조선천주교회가 재건되는 시점에서 사제의 집주인과 조선말[한문] 선생, 복사, 회장[순회 전교회장], 교리서 저술가, 교리교육 강사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의 『소원신중』 저술 시기 문제 (기존의 1887년 설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봉교자술』(한글본 40앞~41뒤, 한문본 24뒤~25뒤)에서 의하면, 블랑 주교가 일본 새 주교를 축성하러 갔을 때 푸아넬 박 신부(당가[경리신부])가 김 회장에게 문답참고를 위한 책을 저술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소원신중』인 것은 분명한데, 그 저술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블랑 주교가 일본 새 주교를 축성하러’ 간 시점입니다. 여기서 ‘일본 새 주교’는 1885년 ‘남일본대목구장’ 주교로 성성된 쿠쟁(Cousin) 주교입니다. 블랑 주교는 오사카에 개최된 성성식에 참여하기 위해 188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을 떠나 8월 25일경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9월 21일 성성식에서 주례를 맡은 ‘북일본대목구장’ 오주프 주교의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블랑 주교는 코스트 신부, 인쇄 기계[나가사키 성서활판소] 등과 함께 11월 8일 조선에 돌아왔습니다.(연속진 번역, 『코스트 요한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23, 178~182쪽)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면, 『소원신중』의 저술 연도는 1885년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기호-김형옥 회장 관련 자료’ 연재를 마칩니다. 신자들의 증언과 선교사제의 서한을 『봉교자술』·족보·가전전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형옥 요한과 김기호 요한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과 김형옥(김기호) 회장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형옥=김기호 회장을 비롯한 조선인 신자[지도자]들과 조선천주교 역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